

이개호 장관, 국경가축검역현장 점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목) 인천국제공항(1터미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이 장관은 "최근 중국, 몽골에 이어 베트남에서 ASF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하라"며, "양돈농가에서는 ASF 발생지역 여행자제, 부득이 여행 시 축산물 반입 금지, 남은 음식물 급여 자제, 소독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서삼석 의원,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활성화 발의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양·무안·신안)이 13일 '수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상제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산 천일염 소비촉진과 소금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우수천일염인증품 등을 소금 구매 총액의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구매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발의로 최근 월동 채소류의 가격폭락 등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으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길을 열어 주기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으로 각종 면허관리부터 정기적인 안전검사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관련기사 4면>

/무안·류춘범 기자

이용섭 시장-김영록 지사, 국방부 장관 면담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이니 이전대상 주도적 역할 건의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3월 12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시장·도지사는 "광주군 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국책사업이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사업은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므로 광주와 전남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가 이전대상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시장, 상생형 지역일자리 국회토론회 참석...성공비결 제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비결로 ▲일자리 창출을 간절히 염원하는 지역사회의 '절실함' ▲노동존중과 투자환경 조성에 대한 '비전제시' ▲'단체장의 강한 추진력' 등 3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김문수 도의원, 농어업인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정부 지원 중단 위기

김문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로 중단된다"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11143호, 2011. 12. 31.)제7조에 따르면, "임의

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법 제8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로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연금보험료 지



원은 중단되는 사태를 맞는다.

김문수 의원은 "정부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과,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지원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김성일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식당들 수입 김치 줄여야"

김 위원장, 국산 김치 사용 권장 캠페인 전개 제시

전남도의회 김성일 농수산위원장(민주당/해남 1)이 1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 식당들이 국산 김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월동 배추와 겨울 대파 값 폭락으로 전남 지역 재배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 더해 김치 수입을 줄일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산 김치는 91만 톤, 수입 김치는 26만 톤으로 수입 김치가 국내산 김치 생산량의 30% 가까운 양을 차지한다. 또 식당의 80%가 수입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채소가격 안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식당의 국내산 김치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 전개 ▲전남도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국산 김치



제공 식당 우선 이용하기 ▲지역 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 시스템 구축 ▲김치 원산지 거짓 표기나 국산 등급 유통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실천방안을 제안했다.

김성일 위원장은 "김치 수입량이 늘어난 만큼 배추뿐만 아니라 대파,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 채소류 수요마저 위축되고 있다"면서, "식당들이 국산 김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청년이 농촌에 돌아오는 활기찬 전남을 만드는 소중한 실천이다"고 강조했다. /이민행 대표기자

盧嶺 敵



이민행 CEO 편집인

知者過之 너무 총명해도 탈이 난다

자신의 궤에 말려들어 인생 '쪽박' 친다. '박' 일제 청산 '반민특위' 가 국론분열 전쟁터라? 보조금 부정수급 철폐 가해야

자유한국당의 인물이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이어 또 한명 나왔다. 이회창 총재 아래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발을 디딘 나경원 의원이자. 나경원은 자기 비례로 국회 의원 발 당선서 '비례대표 없애자'고 하더니 지난 11일은 자신도 한번 똑똑해보고 싶었던지 대통령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 수석대변인'이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나경원은 한술 더 떠 일제 청산을 위해 구성된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국론분열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나경원은 '친일청산'을 국론분열로 여기며 이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자세히 설명까지 했다. 일제청산이 그는 전쟁으로 보였는지 말이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6월 6일 '반탁위승격사건'을 일으켜 조사를 담당하던 특별경찰을 빨갱이로 몰아 처단해 버렸다. 20일에는 제1차 '국회프락치' 사건을 일으켜 국회의원 6명을 빨갱이로, 25일 1명, 8월에 4명 등 14명을 처단했으며, 25일에는 '백범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터진 매우 비참한 역사인데 나경원이 '친일'을 들고 나왔다. 정상적인 국가의 제10대 원내대표가 세계를 상대로 국가원수 대통령을 모독하고도 모자라, 이제 '반민특위'를 걸고넘어지며 나라의 국가(國家)기상을 흔들고 나서 대한민국의 위신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다. 일본이야 우군이 생겼으니 쌍수를 들고 박수 칠 일이지만.

나경원은 '친일파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 때 관할 판사였으며, 일본 대사관 '한국 침략 자위대 50주년 행사' 참가하고,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 반대하고, 17개 학교 사학재발 후속대책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박근혜 위안부 합의'에 찬성했다.

현명한 사람은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보아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것이다. 단점은 대상에 불과하고 장점이 주체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치 꼴은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상대 당이 단점이 보이면 더욱 부풀려 민심을 이반시키고 이것도 모자라 국론을 분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血眼(혈안)을 쓰면서 '현대사의 역사를 자의적·임의적으로 왜곡한다. 이런 언동이 얼마나 잘못인지를 알면서 모르는 것처럼.

血眼, 눈이 빨강게 핏빛으로 물들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빨강색을 좋아하는 정당 자유한국당을 표방하는 색이 빨강색이다. 血眼이 솟구치면 무섭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5.18민주화 관련해 폭동, 과몰, 북한군침입 등을 주장하며 血眼이 솟구치도록 외치며 '입춤'을 쓰다대었다.

특히, 개신교도로서 법무장관·총리에 이어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지낸 황교안 대표 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에게 돈 파출 공리만 하고 있다", "전교조·주사파 세력들만 평영시키고 있다", "최소실의 태블릿 PC가 조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망언을 내뿜었다. 예매당 가서는 뭐라고 기도할까 금금해진다.

고 김성수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과 죄인으로서의 육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목표"라고 실했다.

공자는 中庸(중용)에 "知者過之(지자과지), 총명한 자는 지나쳐서 탈이다"고 했다. 머리가 너무 명석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정신질환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 머리가 따라주질 못하는데 잘난 체 하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많다. 너무 똑똑한 체 말자. 자신이 낸 궤에 자신이 말려들어 인생 '쪽박' 친는 사는 사람 수없이 많다. '쪽박' 하니 자유한국당이 떠오르며 '박'이 묘한 여운을 남긴다.

경봉 대신사는 "人生苦樂從心起 活眼照來萬事康(활안조래만사강 인생고락중심기), 인생의 괴로움과 즐거움은 마음에서 일어나, 밝게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면 만사가 모두 편안하다"는 말씀을 새기며 '국론분열'의 정리가 무엇인지 뒤우치며 정신 좀 차리고 살자. 대한민국에 일본을 위해 우구충적(憂國衷情)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 도둑질하러 올까 겁난다.

◆**함평군, '보조금 부정수급' 과 전쟁선포**
☞무안·나주 등 인근 지자체도 철폐 내려야

이윤형 함평군수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억만번 지시해도 부족함이 없는 행정이다.

함평군 전임군수는 아들과 비서실장 동생이 보조금 불법 부정 수령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해 법원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실형을 받고, 그래도 부끄러운 줄을 알았는지 사회봉사명령은 무안군에서 받았다고 한다.

죄인은 한 가닥의 양심이 있었던지 사회봉사는 함평에서 받지 않았으나, 정작 결제를 한 당시 군수는 부정한 사업에 대해 재입기간 및 퇴임 후에도 군민에게 사과 말 한마디 없었고, 군수 3선을 출마하려다 미투사건이 터지자 군수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군수를 당직에서 제명 처리해 버렸다.

또한 민선 5기 때도 민물고기 양식장, 저운저장고 등 보조금 부정 사건이 있어 본지가 심층취재 보도한 바가 있다.

먹고 살만한 자들이 정치판에 가웃거리며 몇억원씩 보조금 타먹고 고급 승용차 굴리고 다니면서 군민 위에 군림하며 거들먹거리는 자들이 수도룩하니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자. 대학에 '赫兮咺兮者 威儀也(혁혜현혜자 위야), 환하고 뚜렷하다는 것은 위엄과 의뢰가 있음이다'고 했다. 위엄을 바로 세우 보조금 부정자들을 일망천진하자.

盧嶺新聞
www.rorynews.kr
E-mail: rory8933@hanmail.net / hpcj3355@naver.com

신문운리강령
주관 노영盧嶺은 신문운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막대한 애정으로 미래의 꿈과 희망을 대변할 것입니다.

구독료: 월 5,000원
납부계좌: 농협 351-0934-9171-73
(예금주 주간노영)

등록번호: 전남도 0031 발 행 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면성2길 15
인 쇄 소: 남도프린테크(광주광역시 광성구 영동로 803번길 인월93-10)